

야산(野山) 故 안인철 목사
1주기 추도예배



- 일 시: 2021년 8월 9일(월) 오전10시
- 장 소: 갈산교회, 서산시 희망공원묘지

추도예배순서

사회: 이상진 목사

목 도 사 회 자

찬 송 413장(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 이

1. 내 평생에 가는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갈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 내 지은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 보다 더 정하리라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 도 이종명 목사

노 래 당신이 남긴 사진 속에는 다 같 이

영 상故 안인철목사를추억하며 다 같 이

추 도 사 김도규 장로

추 도 시 박 철 목사

성경봉독 에스겔 37:9~10 사 회 자

설 교 일어나라! 정창석 목사

故 안인철 목사와 함께 한 시간 서산시민단체, 목회자 지인

유족인사 김동미 사모

광 고 사 회 자

찬 송 438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다 같 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 도 서산지방 한대근 감리사

가난한 목사를 애도함

-야산(野山) 안인철 목사 1주기에

박 철 (샘터교회 원로목사)

이 세상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이 짧아야 하는 이유라든가
생명의 짧음이, 아름다움의 참 원인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가난은 부끄럼이나 불편함이 아니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진실로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가난함을 애처로 삼고
비천함을 집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평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지 않고,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부모보다
가난함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항상 곁에 두고
늘 겸비하여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소수자 편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눈팔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와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언제나 허드렛일을 자청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고,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본성이 선하고 결이 부드럽고, 지혜와 기쁨이 넘쳤고
하늘같이 맑은 사람이었다.

참으로 그의 부재가 원망스럽구나!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 같은 것이란 말인가
그대와 나누었던 사랑과 우정 대화와 산행
그것을 추억으로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야속하구나!

세파가 할퀴고 간 생의 난파선에서, 질병과 고독에 절은 영혼들을
끄집어 올리던 그대의 손길은, 오직 가난이 되어 그 실체를 목도()한
성자들의 당연한 몸짓에서만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된 때에
나도 비로소 가난을 추구하기로 맘먹기에 이르렀다

아, 뼈가 시리도록 가난한 그대여
마음마저 가난한 그대여
아니, 그대로 가난이었던 아름다운 그대여

가는 사람 붙잡지 못하고, 가게 만든 아픔을 견디며
사랑이 죽을 만큼 강하다면, 사랑은 파멸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구나!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 어둠 배웅하는 지상의 등불을 위해
기꺼이 더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야산(野山)추도사

-김도규장로

7월 초에 동미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야산 1주기에 대한 이야기였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형수가 야산을 참 많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
평범한 말 한마디에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평경 그 미움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운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그 신비를 그날 느꼈었네.

북산과 함께 소백산 움막에 찾아온 그대가
소백산 민들레가 마음에 들었는지
산에서도 방에서도 군불 때는 정지에서도 친구를 하자고 해서
서글서글하고 소박한 그대 모습에 반해 그때부터 벗으로 함께 했었지.

소백산 산속 민박집에서 북산이
모든 명산은 야산을 통하지 않고는 오를 수 없다는 말을 하시며
그대에게 야산이라는 호를 선사하시며 나에게도 소백산이란 호를 주셨었지.

그땐 속코쟁이만 걸치고도 마냥 즐거웠고 행복했었지.
홍정하여 깎은 민박 값 오천 원으로 곡차를 한 잔 한 것만으로도
북산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 허세를 부리던 그 시절
그 소백산 풍경이 사뭇 그림고 아련하네.

평평 울면서 전화한 은경으로부터 그대 귀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까칠했지만 다정다감했고 인간적이고 호불호가 뚜렷한 그대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네.

교회를 다시 짓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격어 가면서
멀치와 김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니며 흘린 땀방울과 그 노고를 생각할 때면

경이와 존경의 마음이 들었었네.

북산을 통해 만난 민들레 벚들의 모습은 참으로 신선하고 상쾌했었다네.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믿음 되로 살아냈던 그대로 인해
톨게이트 여성 동지들이 목사님이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린 비 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많이 부끄러웠고 또한 전율을 느꼈어.

힘없고 약한 이들을 대하는 형의 의연함과 애뜻함,

소외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그늘이 되어 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큰 친구를 두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

북산의 큰 그늘에서 그대라는 친구를 만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며

야산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야산이 일주일 금식기도 차 나 살던 소백산 달밭골에 왔다가

시렁 위에 라면을 보고 고만 끓여묵고 금식을 멈춘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배고프면 먹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빛어주신 모양 그대로 도무지 성스럽지 않고 도무지 거룩하지 않은

그러기에 더욱 성스럽고 더욱 거룩한 그대 모습의 야산이었기에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다네.

출근 때마다 공원에 들려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형수의 모습 속에서도

한과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을 본다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동미 여사님께서 슬픔을 던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잘 살고 있느니

그곳에서도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시게나.

오늘 일주기를 맞아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많은 벚들이 그대와 함께했던 날들이 그리워
한 달음에 달려왔으니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네

그곳이야 가보지 못해 알 수야 없겠지만

먼저 간 이들과 함께 이 산 저 산 명산을 북산과 함께 다니며 아프지 말고 잘 살고 계셔.

우리 또한 이생에서 열심히 살다 위에서 부르면 그때에 만나

못다 한 이야기하며 깊게 포옹했으면 좋겠네.

1주기를 맞아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대신하여 추도사를 가름합니다.

당신이 남긴 사진 속에는

1

안인철 목사님 추모곡

글, 곡 이 혁



해 가 서 산 으 로 지 고 캄 캄 한 새 벽 별 빛 반 짝 일 때



떠 오 르 는 햇 빛 마 중 하 러 당 신 떠 - 나 갔 네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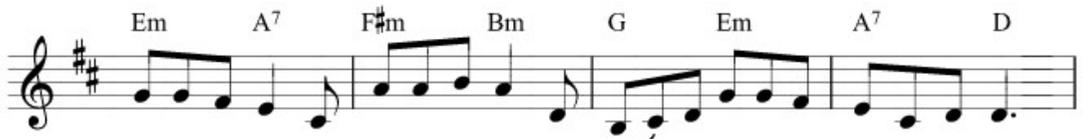
당 신 의 선 하 디 선 한 눈 에 고 통 의 세 상 아 른 거 릴 때 면



지 체 없 이 당 신 의 발 걸 음 움 - 겨 네 모 난 사 진 안 에 고 이 담 았 죠



당 신 이 남 기 는 사 진 속 에 는 고 통 과 한 숨 희 망 과 환 희



고 요 와 평 화 사 랑 과 진 실 신 - 의 눈 물 이 담 겨 있 죠



네 모 난 액 자 속 당 신 의 모 습 이 몸 시 도 그 리 운 날 이 면



당 신 의 시 선 머 물 던 곳 으 로 발 걸 음 움 길 께 요 -



그 러 면 당 신 을 만 날 수 있 겠 죠 그 곳 에 서 당 신 과 함 께 멋 진



추 억 의 사 - 진 담 고 싶 어 요 당 신 과 함 께 환 한 웃 음 지 으 며 잘



가 요 그 대 기 억 할 께 요 잘 가 요 그 대 기 억 할 께 요 잘



기 억 할 께 요 음 음 - 음 - 음 - 음 음 음 - 음



故 안인철목사 약력소개

- 1959. 5. 14. 경남 울산에서 안덕창목사 이도우사모의 장남으로 출생.
- 1988. 4. 26. 김동미 사모와 결혼.
- 1989. 2. 14. 협성대학교 신학과 졸업.
- 1989. 3. 남부연회 서산지방 갈산교회 파송.
- 1992 ~ 1995 서산지방 통계서기.
- 1993. 3. 26.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
- 1993 ~ 서산 새너을신문 창립멤버로 참여.
- 1997 ~ 2000 서산지방 회계
- 1999 ~ 2002 충청연회 정보위원 활동으로 충청연회 명감(CD) 1, 2차 제작.
- 2005 ~ 서산YMCA 부이사장.
- 2005 ~ 2006 갈산교회 새성전 건축(현위치 갈산동 842)
- 2007 ~ 2008 서산지방 선교부 총무.
- 2007. 12. ~ 태안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기름유출 3일 후부터 생생한 현장사진을 찍어 생태백서
「서해안에 피어오르는 희망」집필에 참여.
- 2008. 12. 한국교회봉사단으로부터 수상
- 2008.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홍보위원
- 2013. ~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산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운영위원.
서산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태안 연대회의 공동대표.
서산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도보행진 (1,2,3 차 총 400KM)
서산 톨게이트 문제해결을 위한 서산시민사회공동대표.
- 2014. 기독교환경연대 - 녹색교회로 선정.
- 2020. 8. 1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 유가족 소개

김동미 사모
아들: 안상호

▣ 광고

1. 야산(野山) 故 안인철목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애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식사 후 서산시 희망공원묘지에 방문하고자 하오니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묘지[서산시 인지면 무학재2길 106(산동리 574-19)]